

###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내년 609억 투입

# 전남, 고부가 미래먹거리 육성

#### 화학·철강산업 재도약 추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연계 여수국가산단 자원순환 개조



광양만권 산단대개조 현황도 /전남도청

전남도는 오는 2024년까지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울촌산단을 연계한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를 통해 화학·철강산업 재도약에 나선다.

사업추진 첫 해인 내년에는 18개 사업 국비 609억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본격적인 산단 대개조에 착수한다.

산단 대개조는 제조업 중심 산단과 인접 인프라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연계해 신산업을 육성하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형 프로젝트다.

지난 5월 정부 첫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양만권 산단은 석유화학 및 철강산업 집적지로 전남 산단 생산액의 89%, 입주기업의 24%, 고용인원의 57.7%를 차지하는 지역 제조업 핵심 거점이다.

전남도는 15일 광양만권 산단을 저탄소 지능형 소재부품산단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거점산단과 연계, 산단별 기능 배분과 특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국가산단의 경우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의 거점산단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별도 지

정함에 따라 정부 뉴딜정책에 맞춰 화학산업 중심의 자원순환·신산업 창출 산단으로 개조한다.

광양국가산단은 철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른 기반시설을 확충해 스타트업 기업 육성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한 이차전지, 금속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울촌일반산단은 여수·광양산단의 석유화학, 철강제품을 정밀화학, 금속소재부품 등 고부가 신산업으로 육성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광양만권 산단은 공업용수, 폐수처리, 산업용지, 배관망 등 공공인프라 부족과 노후화로 기업의 대규모 신규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ICT 등 스마트 기반 부족과 반복되는 환경·안전사고 문제발생, 주력

산업인 화학·철강산업의 장기 저성장과 신성장산업과의 가치사슬 연계 등 산업 고도화 필요성도 줄곧 제기돼 왔다.

전남도는 2024년까지 52개 신규사업과 16개 연계사업을 정부에 제안하고 세부사업 계획을 협의 중이며, 오는 12월 정부와 협약을 통해 추진사업을 확정한다.

이 가운데 전남도는 내년에 우선 추진할 18개 사업에 대한 1차년도 국비 609억원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사업은 광양만권 산단의 반복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과 유해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단 내 환경·안전 통합관리센터와 함께 개별공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태풍경보에도 경북, 대처 미흡”

영양군 반변천 범람으로 피해 속출



하천예방사업 페콘크리트 모습.

경상북도가 영양군 반변천 상습침수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반변천(영양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본래 목적이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이 사업은 영양군 일월면 칠성리~입암면 신구리 일원 상습 수해위험지구에 대해 하천제방 10.1km를 정비해 홍수 방어 능력 증대와 영농안전을 위해 옹벽 거푸집 등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은 461억원 7800만원을 들여 오는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태풍과 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이 사업은 최근 바비·마이삭·하이선으로 이어진 연이은 태풍에 무참히 무너졌다.

하천 제방공사 중 쌓아 둔 모래와 자갈, 흙 등이 물의 흐름을 방해해 인근 농경지 및 과수원으로 넘쳐흘렀다. 2차례 태풍경보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 페콘크리트와 다량의 폐기물을 적절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주원인이다. 사업 구간에 있는 감천리 농경지 및 사과농장 약 4ha (1만 2000평 내외)가 침수피해를 입었다.

경상북도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공사구간 부실 관리여부 대한 조사는 외면한 채 농경지 침수농가의 피해 수습에만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어 피해 농민을 또 한번 울리고 있다. 시공사는 하천으로 흘러들어온 페콘크리트와 폐기물 수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리감독자인 경상북도 관계자는 “태풍 마이삭·하이선 기간 내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와 폐건설 자체 유실 사실이 없다”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고의 제보자 L씨(65)는 “공사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경상북도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양(경북)=김귀열·김태우 기자 gold6830112@

##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에 고흥 급부상

국방부 “검토후 후보군 추가 결정”

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국토 최남단 전남 고흥이 급부상하고 있다.

드넓은 간척지 등 입지 여건이 뛰어난 곳으로, 최근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무안, 해남과 더불어 3대 후보지로 유력시되고 있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황금어장 훼손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와 함께 공군 등 국방부 내부 조율작업도 해결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방부 군공항이전추진단 등에 따르면 국방부가 최근 군공항 기본요건인 1150만㎡(350만평) 이상 부지를 갖춘 전남지역 9곳을 대상으로 작전성행 가능성 여부, 즉 ‘작전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고흥만 유일하게 통과했다.

나머지 8곳은 부지만 넓을 뿐 크고 작은 제약조건이 많아 모두 탈락했다.

국방부는 공군과 협의해 전투기 이착륙 시뮬레이션과 비행 데이터 분석, 주변 임야와 논·밭 등 장애요소를 면밀

히 검토한 뒤 고흥을 이전후보군에 추가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16년 8월 광주군공항 이전 타당성 평가결과 최종 ‘적정’ 판정이 나온 뒤 이듬해부터 단계적 검토를 거쳐 무안과 해남을 양대 후보지로 정한 뒤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협의를 거쳐왔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수년째 담보상태에 놓이자 제3의 후보지를 모색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애초 12개 후보지 중 일찌감치 후보군에서 탈락한 신안을 제외한 나머지 9곳을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작전성 검토를 해봤더니, 고흥 한 곳만 적절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자체와의 사전 조율 등이 필요한 만큼 최종 후보지로 채택될 지, 드롭(탈락)될 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흥지역에 항공센터와 경비행장이 이미 갖춰져 있고, 내년까지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이 조성 중인 점도 중요 고려사항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김태우 기자 ts7080@

## 수수료 확 낮춘 서울시 ‘공공배달앱’ 출범

‘제로배달 유니온’ 오늘부터 서비스  
서울사랑상품권 가능... 오픈 할인도



서울시와 중소 규모 민간 배달앱사가 배달 중개 수수료를 0~2%로 대폭 낮춰 만든 공공 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이 16일 정식 출범한다.

서울시는 이날 서비스 시작에 맞춰 제로배달 유니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12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지난 6월 25일 서울시와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소상공인단체, 민간 배달앱사가 함께 소상공인의 배달중개수수료 절감을 위해 추진해왔다.

배달앱에 서울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 발행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중구, 중구 등을 시작으로 총 24개 자치구에서 최대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현재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은 4차에 걸쳐 총 3980억원이 발행됐고, 광진구와 강동구 등 2개구를 제외하고 모두 소진된 상태다.

특히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서울사랑상품권은 7개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오픈기념으로 상품권 결제 시 1개월간 10% 추가할인(1일 최대 2000원, 월 최대 5만원) 행사도 진행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 20% 할인을 받는 셈이다.

/한용수 기자 hys@

## 서울시, ‘3D가상회의 플랫폼’ 개발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3D 가상회의 플랫폼인 ‘3D 가상공간 서울’을 개발, 17~18일 ‘제8차 국제협회연합(U IA) 아시아-태평양 총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907년 설립된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UIA)은 국제협회·단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제회의 개최 실적 등을 집계하는 저명한 기관이다. 올해는 전세계 23개국 150여명의 UIA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치러진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회와 학회, 컨벤션센터 등이 참석해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지난해 2월 유치에 성공한 뒤 회의를 준비해오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비대면’ 방식의 3D 가상회의 플랫폼을 개발했다. 서울시는 “도시 자체를 마케팅하는 가상 플랫폼을 개발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3D 가상공간 서울’에는 창덕궁, 세빛섬, 서울식물원, DDP 옥상정원, N서울타워 등 주요 명소가 360도 입체 공간으로 구현됐다. 창덕궁 내 마련된 콘퍼런스홀에서는 기조연설과 강연 등 메인 프로그램이 열리고, 세빛섬에서는 한강 전망을 배경으로 토크 세션이 진행된다. 인력거 투어, 쿠킹클래스 같은 서울관광 프로그램을 가상현실(VR) 영상으로 생생하게 즐길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이 가상회의 플랫폼을 향후 MICE(MICE) 업계의 다른 온라인 행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5 | 해질 / 18:38

9월 16일 (수)  
음력 : 7월 29일

수도권 날씨  
25~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8/25, 동두천 19/25, 파주 18/24, 가평 18/24, 서울 20/25, 양평 19/25, 인천 20/24, 수원 20/25, 용인 20/25, 평택 19/26, 백령도 20/23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